
나는 뽀뽀하고 싶지 않아 KPC랑!!!!

키스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나리오

개요

뽀뽀... 안 해요?
두 분이 뽀뽀하셨으면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

그러니까... 아까부터 컷가에 웬알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코로코로행성에서 왔습니다! 제발 키스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알랄라 기자입니다! KPC 님과 키스 한 번이면 저희 행성이 구원받아요!”
“키스! 제발! 한 번만!”

약 3시간 48분 가량의 속삭임에 빠치고만 탐사자는 앞에 KPC가 있는 것도 잊고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뽀뽀하고 싶지 않아 KPC랑!!!!”

... KPC가 마시던 오렌지 주스를 주룩룩 흘리는 걸 보아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재도 탐사자랑 딱히 뽀뽀하고 싶진 않을 거라구요.

코로코로행성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아까부터 모기처럼 웬알 거리는 소리도 거슬립니다. 무엇보다 이 녀석들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싫다는 의사까지 확실히 표현했으니 포기하고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만... “어쩔 수 없군, 그 방법을 쓴다.”라며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더니 5분 뒤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어찌구 국가에서 실험적으로 생산한 울트라수소폭탄이 발사되어 2시간 뒤에 지구가 파괴될 것입니다. 수소폭탄을 발사시킨 정체불명의 해킹범은 하나의 메시지를 남겨놨는데요. ‘탐사자와 KPC가 뽀뽀를 하면 수소폭탄이 멈춘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탐사자와 KPC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바로 뽀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긴급 뉴스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데!!!

“이제... 뽀뽀... 할 거죠?”

안내

인원 : KPC+PC 1:1 타이만

룰 : CoC7판

배경 : 현대

탐사자 : 난 뽀뽀하고 싶지 않아 KPC랑!!!

KPC : ↑의 말에 마음의 상처를 입긴 했지만 애도 딱히 뽀뽀하고 싶은 건 아님

관계 : 뽀뽀하래서 바로 뽀뽀하는 관계만 아니면 OK

플레이 타임 : 1~2시간 상정 (뽀뽀해버리면 바로 끝남)

탐사자 난이도 : ★☆☆☆☆

키퍼링 난이도 : ★☆☆☆☆

전투 : X

로스트 : O...?

권장 기능치 : ~~하늘람~~ 말재주 등의 대인 기능, 무슨 일이 일어나도 뽀뽀 안 하겠다는

마음가짐. (하면 하는 대로 라이터는 땡잡음)

주의사항 : - 기본 공지사항을 읽어주세요. ([링크](#))

- 시나리오 약칭은 <나뽀케>정도로 부탁드립니다.

- 주의 소재 : 주변에서 마구 뽀뽀하라고 함, 원치 않은 뽀뽀, 수소 폭탄 등

- 라이터의 창작 신화 생물 및 창작 신화적 요소가 등장합니다. 해당 부분에 민감하신 분은 열람을 재고해주세요. 신화 생물의 직접적인 등장도 없습니다.

- 개그 시나리오입니다.

소개

뽀뽀해요.

뽀뽀... 안 해요?

이래도 안 해?

--이하로 진상이 이어집니다.--

--키퍼링 예정자분만 열람해주세요.--

진상

소개

다른 행성인의 문제에 운없이 휘말려 키스를 해야만 하는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상황에 놓인 탐사자와 KPC의 이야기를 다룬 시나리오입니다.

코로코로 행성

코로코로 행성은 신화 생물에 의해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성에 살던 지성체들은 자신들의 의식을 데이터화하여 어떻게든 삶을 영위합니다. 이들은 데이터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지구에서 보낸 통신 파장에 접촉해 지구의 통신망에 들어갑니다.

지구는 정말 살기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방치형 게임에 몰래 들어가 놀거나 키우기형 게임에 들어가 데이터를 섭취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소수의 코로코로인들에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몸을 갖고 싶어! 그래서 소환했습니다 ‘그분’을...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여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분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소환한 코로인들에게 ‘세계의 문을 열 문과 열쇠가 만나면 너희는 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계의 문과 열쇠가 뭐죠?! 코로인들의 질문에 그분은 ‘어어, 지금부터 랜덤으로 정한다’라고 했고... 룰렛에 탐사자의 입술과 KPC의 입술이 걸렸습니다.

뽀뽀하면 모든 게 해결?

될 거 같습니다. 이 녀석들은 모든 수를 동원해 두 사람을 뽀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몸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뽀뽀를 해버리면 지구에 인구수가 2배가 됩니다. (좋은 거 아니가요? > 인간 멸망이 자연보호의 어쩌구)

뭐... 나쁜 결말은 아니겠지만? 코로코로인들 대부분은 남의 행성에 이려고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서 변절자 코로인들의 계획이 이뤄지지 않길 바랍니다! 탐사자와 KPC를 지원할 코로인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근데 애네 도움은 거의 안 됩니다.

결말에 대해

뽀뽀... 안 할 거예요? 뽀뽀 안 하면 지구가 멸망하는데도? 8~8?

0. 뽀뽀 해요...!

탐사자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짹,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아침을 알리면... 탐사자는 핸드폰에 뜬 시간을 확인하고 다시 잡니다. (일어날 캐릭터면 지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짧은 꿈을 꿉니다. (일어난 캐릭터라면 그러고 보니 이상한 꿈을 꿉었죠.)

형태를 알 수 없는 흰 실루엣들이 탐사자와... 어... 어... 당신 옆에 **KPC**가 있네요. 아무튼 둘을 둘러싸더니 마구 박수를 칩니다. “우리의 영웅!” “멋져!” “믿고 있었다고!” 라며 환호하네요. 뭘 했길래... 하고 **KPC**를 보면... 얼굴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입술이... 당신의 입술과... 마주하... 이 녀석이 미쳤나!

퍽!

당신은 퍽!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납니다. 눈을 떠보면... 핸드폰이 진동을 하다가 당신을 한 대 쳤습니다.

[핸드폰을 본다.] 당신이 켜지도 않았는데 깨파오 톡이 켜져있습니다. 뭔가 메시지가 왔네요. 메시지를 확인하면... ‘뽀뽀해요.’ 라고 적혀있습니다.

[답장을 하거나 바로 차단하지 않는다.] ‘해줄 거죠?’ ‘믿고 있을게요.’ 같은 메시지가 추가로 옵니다.

[차단한다.] 다른 연락처로 연락은 안옵니다. 아니 꿈도 이상한데 이런 메시지가 다 있을까요...

잠시 후 **KPC**에게 연락이 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탐사자가 죽어도 안 가겠다고 하면) **KPC**가 무슨 일이 있냐면서 탐사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땡동... 손에는 집들이 선물로 오렌지주스가 들려있습니다. 이후 진행은 배경만 탐사자의 집인 거로 하고 나머지 이벤트는 동일합니다.

탐사자가 들여보내주지도 않는다면?) 대체 무슨 관계로 플레이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위에 이벤트가 발생한 뒤 갑자기 탐사자와 **KPC**의 핸드폰에 영상통화가 연결되며 강제로 진행합니다. 영상통화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1. 뽀뽀 안 해요...?

1-1. 사건의 발단

탐사자는 KPC와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가는 중에 중요한 이벤트는 하나뿐입니다.

[E. 이어폰을 꺼요.]

탐사자에게 당연히 노래 들을 거지? 하는 등 탐사자가 자연스럽게 이어폰을 끼도록 유도해 주세요. 이동시간에 노래는 들어야죠. 탐사자가 한 번에 두 쪽을 다 낀다는 선언이 없다면 한쪽만 끼고, 그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탐사자님! 드디어 저희 목소리가 달았군요!”

... 뭔가 앵알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놀라서 이어폰을 빼려고 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귀에 완전히 붙었습니다. (*코로코로인들의 마법의 힘으로 붙여둔 겁니다. 못 뺍니다.)

통화도 하지 않는데 이어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환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성 판정이 있습니다. (0/1)

KP 메모 - 라이터의 개인 추천인데 롤20 기준 두 캐릭터가 뽀뽀하길 원하는 시나리오 알뇌 지인들을 불러다가 **as**를 통합해 권한을 드리고 뽀뽀하라고 종용하는 **RP**를 해도 재밌을 거 같습니다.

! 잠깐 ! 저희 탁은 시대를 개변해서 폰이나 이어폰이 없는데요?! > 어쨌게든 더 개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파이팅. 웬 못 보던 소라 껍데기가 있어서 주웠는데 말을 건다던가... 이것보다는 더 정상적인 개변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흰 밖에 못 나갔어요! > 그럼 이어폰에 날개가 달려서 탐사자 귀에 꽂힙니다.

탐사자가 이어폰을 낀 뒤로 누군지 모를 정체불명의 목소리들은 자기소개부터 시작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저흰 코로코로행성의 코로코로인이예요!”

“탐사자님! 보고 싶었어요!”

“탐사자님은 저희의 구원자 셔요!”

등등등... 온갖 아부를 다 떨다가 탐사자가 카페에 도착하고 KPC와 마주하는 순간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저분!!! KPC 님과 키 스 해 주 세 요!!”

“저희는 코로코로행성에서 왔습니다! 제발 키스 한 번만 해주세요!”

“저는 알랄라 기자입니다! KPC 님과 키스 한 번이면 저희 행성이 구원받아요!”

“키스! 제발! 한 번만!”

왹알왹알, 이어폰에서 여전히 복작복작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근데 뭐라고요? **KPC**랑 키스를 하라고요? 탐사자의 어이없음 정도에 따라 이성 판정이 있습니다. (0/1d2)

코로코로인들은 **BGM**으로 사랑 노래를 틀지 않나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KP** 분께선 **KPC**로 탐사자와 대화를 하시면서 코로코로인들을 통해선 어떻게 키스를 중용하세요.

그러다가 탐사자가 이 시나리오의 제목을 외치면 본격적으로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안 외치면요? > (ORPG한정) 정신력 판정 후 실패하면 권한 뺏아서 대신 외칩니다.

1-2. 울트라 수소폭탄

“나는 뽀뽀하고 싶지 않아 **KPC**랑!!!!”

... 카페에 탐사자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손님이 없어 오픈 키친에서 잔을 닦던 주인장은 “이열...”이라고 중얼이네요.

KPC가 마시던 오렌지 주스를 주룩룩 흘리는 걸 보아선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 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채도 탐사자랑 딱히 뽀뽀하고 싶진 않을 거라구요.

코로코로행성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아까부터 모기처럼 왹알 거리는 소리도 거슬립니다. 뭇보다 이 녀석들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싫다는 의사까지 확실히 표현했으니 포기하고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만... “어쩔 수 없군, 그 방법을 쓴다.”라며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더니... 어라? 이 녀석들 조용하네요.

이때 잠시 **KPC**를 통해 자신도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등의 **RP**를 합시다. **RP**가 끝나면 갑자기... **TV**가 켜지더니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방금 어쩌구 국가에서 실험적으로 생산한 울트라수소폭탄이 발사되어 2시간 뒤에 지구가 파괴될 것입니다. 수소폭탄을 발사시킨 정체불명의 해킹범은 하나의 메시지를 남겨놨는데요. ‘탐사자와 **KPC**가 뽀뽀를 하면 수소폭탄이 멈춘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탐사자와 **KPC**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은 바로 뽀뽀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긴급 뉴스였습니다.”

탐사자가 경악에 물들고, **KPC**는 들고 있던 잔을 깨먹는 등의 반응이 지나가면 이어폰에서 다시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뽀뽀... 할 거죠?”

네놈들이었냐!!!!!!

이 즈음에서 **KPC**가 탐사자에게 대체 누구랑 통화 중이냐고 묻습니다.

통화?) 이어폰을 끼고 혼잣말하길래 통화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때 탐사자가 나머지 이어폰을 KPC에게 건네면 KPC도 코로코로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충 이 즈음에 KPC도 사건의 경위를 알게 해주세요. 탐사자가 나머지 한쪽 이어폰을 안 준다면 계속 이상하게 뵙니다. (그야 사람 앞에 두고 통화하면 누구든 이상하게 보겠지요.)

이어폰 -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무선 이어폰을 생각했습니다만, 유선이 취향이시면 선을 붙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KPC 귀에서도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이어폰이 안 떨어집니다. 둘은 이제 딱 붙었습니다.

초반에 바로 뽀뽀를 하려고 하면 > [E. 변절자 코로코로들을 막기 위해]로

[E. 변절자 코로코로들을 막기 위해]

해당 이벤트는 초장부터 체념하고 뽀뽀를 하려고 하면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 그래요. 두 사람의 키스 한 번이면 세계를 구할 수 있다. 그럼 해야겠지요.

KPC 알지? 우리 세계를 구하는 거다?

따위의 대사를 하며 두 사람의 입술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컷가에 들리는 코로인들의 목소리가 환호로 변하면서... 환희에 가까운 축복이 쏟아지려는 그때, 입술이 닿기 직전 코로인들의 목소리에 노이즈가 깎입니다.

“까악 이 녀석들 어떻게 알았지?!”

“탐사자 님, KPC 님! 키스는 굳이 안 하셔도”

“방해하지 마!”

“하지 마세요! 하시 싫은 걸 억지로 안 하셔도 돼요!”

“저흰 이 변절자들과 다른 코로인들로 수소폭탄을 막을 방법을 찾고 있-!”

치직, 치지치지직

“아아, 방해꾼들이 잠시 왔습니다. ㅎㅎ 계속하시죠.”

... 계속할까요?

이후 언제라도 뽀뽀를 하면 > 엔딩 A로

1-3. 지구 멸망 1시간하고 몇십분 전

탐사자와 KPC가 상황을 살피기 위해 SNS를 본다거나 주변을 둘러보면 발생하는 이벤트들입니다.

[E. SNS]

트윗스북의 실시간 발언 1위는 수소폭탄입니다. 들어가 보면 대충...

[수소폭탄 뭐임? 우리 2시간 뒤에 멸망한단데?][수소폭탄, 어찌구, 저찌구, 광고]

[수소폭탄이 떨어져도 야근해야 함][유튜브에 위성이 촬영한 수소폭탄 라이브 방송 보고

있음][수소폭탄 완전 평범하게 생겼다.][아 나 이름 탐사자인데 KPC랑 키스해야 하나?
수소폭탄 때문에 이게 뭐임][나 옆에있던 탐사자라는 사람이랑 키스함 수소폭탄이
이어준 인연 ㅠ?]

... 따위의 글들이 나옵니다.

[E. 야 너희 뽀뽀하냐?]

핸드폰에 지인에게서 문자가 와있습니다. (*적당히 창작해서 넣어줍니다.)

[야 탐사자, 너 ㄴ KPC랑 뽀뽀하냐? ㄴ]

[힘내라 ㄴㄴ]

[믿고 있다고!]

[우리 아들/딸 엄마아빠는 탐사자 믿어]

[둘이 결혼도 하는 거 아니냐?]

뽀이 친다면 이성 판정 (0/1)

[E. 키스키스 퍼레이드]

탐사자와 KPC가 밖에 나가서 상황을 살피면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아니 동명이인이 이 정도로 많았나? 실시간 전광판이 하늘에 뜨면서 전 세계에 있는
탐사자와 KPC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키스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아니!!!
너네 키스 그렇게 막 하지 말라고!!! 이러다 진짜 물만 남게 생겼어요!

불안하다면 이성 판정 (0/1)

[E. 수소 폭탄 라이브 방송]

유튜브에서 위성 촬영을 통해 수소폭탄이 발사되는 장면이 생중계됩니다. 아니 이런 거
할 시간에 막으라고...!!!

실시간 방송의 채팅은 온갖 나라의 언어들로 꽉 차있습니다.

대충 탐사자와 KPC에게 제발 키스해달라는 내용과, 조작 그만하라며 믿지 않는 내용,
이거 조작 아님. 하면서 안경을 올리는 내용이 태반입니다.

시청하는 사람이 아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전 세계가 두 사람의 키스를
주목하겠어요.

이성 판정 (0/1)

2. 뽀뽀 외 않 해!

2-1. 지구 멸망 1시간 전

1시간이 남으면 (실시간 체크를 하실 필요는 없고, 이벤트를 다 소비하셨다면 1시간 남았다 등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육안으로 수소폭탄을 본 사람의 증언이 늘어나며 사람들이 점점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전광판에 (혹은 탐사자의 폰에) 긴급 속보가 뜹니다.

“전 세계의 탐사자와 KPC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에게 고지합니다. 현재 키스를 하지 않은 탐사자와 KPC는 총 16명이 남아있습니다. 방금 12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열 분”

아 잠깐만요. 진짜요?

“이제 여덟 분”

“네 분”

...

“두 분 남았습니다!!! 아직 키스하지 않으신 탐사자 님과 KPC 님을 취재하기 위해 저희 측에서 헬기를 띄웠습니다. 곧 두 분의 키스를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죽음 앞에서 없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런 편이죠...) 불길하게도 공중에선 헬기 소리가 들립니다. 헬기에선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아! 탐사자 님과 KPC 님께선 빠르게 키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CoC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당장 키스해 주세요!”

이때 두 사람은 <은밀 행동> 판정이 가능합니다. 성공하면 전광판에 두 사람의 모습이 생중계되지 않지만,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생중계가 시작됩니다.

[E. 전세계가 우릴 주목해]

은밀행동 판정에 실패해 들켰을 경우 발생합니다.

“아! 탐사자 님과 KPC 님을 찾았습니다!!!!”

불길한 목소리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드론이 두 사람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전광판에는 두 사람의 얼굴이 대문짝만 하게 찍히고 있고... 하나였던 드론과 헬기가 점점 두 사람이 있는 쪽으로 오더니 군집을 이루고... 뭔가... 청혼할 때나 해준다는 드론쇼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드론들은 정확히 “키 스 해 주 세 요”라는 모양을 만드는데군요.

아아, 이제 얼굴까지 팔렸습니다. 전 세계가 두 사람을 주목합니다...

이성 판정이 있습니다 (1/1d2)

은밀 행동 판정에 성공했을 경우)

30분 정도 코로인들과 협상이 가능합니다. 대인 기능 극단적 성공 이상이 있다면 코로인들도 조금 설득됩니다. 중간중간 “듣고 보니 맞는 말이야. 반박할 수가 없어.”라는 말이 들리지만 개중에서 똥까닥한 코로인 한 명이 “절대 뽀뽀해 주세요!”하면서 극단 뽀뽀를 강요합니다.(...)

2-2. 지구멸망 30분 전 생방송

지구 멸망이 30분 남으면 은밀 행동 판정에 성공하셨더라도 결국 잡히고 맙니다. 두 사람은 전광판에 대문짝만 하게 올라가고... 전 세계에서 전.꾸(전광판 꾸미기)를 해서 전광판이 샤방샤방합니다. 아... 차라리 처음부터 하고 말걸... 하고 후회하는 탐사자가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 주세요. (월?)

[E. 힘내 포기하지 마!]

이 이벤트는 두 캐릭터가 여러 가지 세션을 거쳐왔다는 전제하에 벌어지는 이벤트입니다.

두 사람이 포기하고 키스하려고 하면...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어폰 안에서입니다. 이 목소리는... 어...? 두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A세션 탐사자 “포기하지 마! 난... KPC랑 뽀뽀하고 싶지 않아!”

B세션 **KPC** “탐사자랑 뽀뽀 따위 하지 말라고!”

C세션 탐사자 “포기하면 안 돼! 네 입술을 지켜!”

... 에...? 전 세계가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 그 때... 다른 차원의 당신들이 당신의 편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아... 고맙긴 한데 도움은 안 됩니다.

(까마귀 까악하면서 지나가요.)

두 사람이 계속 포기하지 않으면 두 사람 국적의 대통령이 나타나서 협상을 시도합니다.(죄송합니다 대통령님)(대통령이 부담스러운 경우 적당히 오너캐로 부탁드립니다.)

- 2023.02.03 추가 : 이걸 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제가 안뽀뽀한 분이 되시는 바람에... 개변안 몇 개 넣어둡니다.

1. 한국인 경우 시대 배경(?)을 2022년 2월 이전으로 한다.
2. 세종대왕님이 나와서 뽀뽀하면 노른자 땅을 준다고 한다.
3. 한남더힐을 통째로 준다고 한다.

대통령 아아, 두 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두 분이 키스를 하시면 (완전 비싼 땅)의 빌딩 한 채를 약속드리겠습니다. 부디 저희의 내일을 지켜주세요.

아... 이놈과 뽀뽀 한 번 이면 빌딩 하나 가 나의 것? 그럴습니다. 빌딩 하나가 탐사자와 KPC의 것이 됩니다. 두 사람의 키스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 되고 아는 사람이 다 알고 평생 놀림거리가 되겠지만 빌딩 한 채라면 좀...

이 즈음에서 같이 거부하던 KPC도 흘러당 넘어가서 탐사자에게 먼저 키스하려 합니다. (ㅎ)

KPC 탐사자, 네 입술이 오늘따라 예뻐 보인다.

이 녀석이 드디어 미쳤나! 하지만 빌딩이면 좀 미쳐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탐사자! 당신마저 정신을 놓으면 정말 키스해야 한다고요!

역시나 뽀뽀를 하면 > 엔딩 **A**로

2-3. 지구멸망 5분 전

ㄸ 여기까지 버튼 탐사자가 있나요? 있으면 있는 대로 계속 진행합니다...

A 국가에서 두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두 분의 키스를 누구보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B 국가에서 두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두 분의 키스가 우리의 인생을 이어가게 해줄 것입니다.”

C 국가에서 두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옵니다.

“두 분의 키스가 내일의 태양을 띄울 것입니다.”

감성적인 브금을 깔아 주시고... 애니메이션 극장판에서 가끔 연출적으로 나오는... 전 세계의 응원 같은 연출을 부탁드립니다. (...)

정말 수소폭탄은 지구를 향해서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내일의 태양을 보지 못하고 멸망하겠지요. 지구의 안녕을 위해... 우리는 정녕 키스해야 하는 걸까요?

끝까지 뽀뽀를 하지 않는다면 > 엔딩 **B**로

엔딩 A 믿고 있었다고!

전 세계에서, 그리고 컷가에서 환호성이 들립니다.

“믿고 있었다고!!!”
“탐사자 님! KPC 님! 믿었어요!”
“최고다 탐사자!!!”
“최고예요 KPC 님!!!!”

이날은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박수를 받았습니다. 온 건물에서 박수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럴 수가, 이 사람들 다 보고 있었던 걸까요?!

수소폭탄은 두 사람이 키스를 한 시점에서부터 작동을 멈췄다는 연락이 들려옵니다.

두 사람의 키스로...! 정말 세상을 구했어요!

문득 서로의 입술에 느껴진 감촉이 거슬릴 즈음...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탐사자 님! KPC 님!”
“두 분 덕분에 저희가 실체를 얻을 수 있게 됐어요!”
“곧 직접 만나요!”

...?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뭐... 키스까지 한 마당에 신경 쓸 일은 아니겠지요?

고생했어요 두 사람!

탐사자 생존, **KPC** 생존
이성 회복 1d5

앞으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탐사자와 **KPC**는 적폐 해석을 당합니다.
코로코로인들이 천천히 실체를 얻어 지구에 현재화됩니다. 지구의 인구가 2배가 됩니다.

엔딩 B 이걸 안 하네...

5

4

3

2

...

1

...

0

쿠웅! 소리가 지구를 강타합니다. 이대로 폭탄이 터지면 모두 녹아내리고 끔찍한 고통 속에서 지구가 멸... 망...

하는 줄 알았는데? 폭탄이 강에 떨어져놓고 터지지 않습니다.

...?

어리둥절할 때 컷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에고! 겨우 재해킹에 성공했어요! 울트라수소폭탄은 터지지 않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지구인분들! 그렇지만 우리 कोरो코로인들이 전부 지구의 파괴라던가 지구에서 실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 주세요!”

...막을 거면 좀 빨리 막으라고! 싶었지만, 이어지는 말에는 조금 안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늦은 대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사건의 기억을 잊도록 도와드릴게요!”
“마지막까지 견뎌내신 두 분을 위한 선물이에요!”

이 녀석들... 좋은 녀석도 있구나...

그렇게 전 세계의 2시간이 흘러당 기억 속에서 날아갑니다.

탐사자와 KPC는 지구가 터져도 둘이 키스는 안 할 거라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간직한 채...

내일의 태양을 약속받습니다.

탐사자 생존, **KPC** 생존

이성 회복 1d5

전 세계 사람들이 사건 발생 2시간의 기억을 잊습니다.

KPC의 성향에 따라서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그 정도로 나랑 키스하기 싫은 거냐...)

후기

그래서 진상에 그분이 대체 누군가요?
누구냐면... 이 세션의 유일무이한 '신'
당신(KP)입니다.

- + B엔딩을 보신 경우 (독하다 탐사자) 세계 멸망시키고 왔다~ 정도까지의 후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모를 스포일러 때문이니 양해부탁드려요!

